

세종시대 편찬물 체재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 『삼강행실도』·『명황계감』·『용비어천가』·『월인석보』의 체재를 중심으로 -

김 승 우*

< 目 次 >

I. 서론	2.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
II. 네 문건의 주요 특징	3. 『명황계감』, 『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
III. 편찬물 체재 간의 상관성	IV. 결론
1.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삼강행실도』·『명황계감』·『용비어천가』·『월인석보』가 지닌 체재상의 특징을 개관하고, 편찬물들 상호간의 상관성 내지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삼강행실도』는 그림과 해설로 짜인 구성의 선례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백성들에게 삼강의 덕목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한 후 관련 사적을 한문으로 풀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왕실 후손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명황계감』에서는 그 같은 『삼강행실도』의 체재가 준용되었으며, 문건 제작에 수양대군이 깊이 관여하였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소용되는 『삼강행실도』와 왕실 후손들을 위한 『명황계감』의 쌍을 상정하여 상호 동일한 체재를 갖추고자 의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창업의 위업을 공식화하기 위해 제작한 『용비어천가』는 노랫말만 존재하던

*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nakimsw@jj.ac.kr

단계에서는 『삼강행실도』 및 『명황계감』과 별반 관련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이내 노랫말 각 장에 일일이 해설을 달아 풀이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개편 체제는 『삼강행실도』·『명황계감』에서 그림이 차지하던 위치에 노랫말이 대신 들어간 형상이다. 한편, 소헌왕후를 추천할 목적으로 편찬한 『석보상절』은 『명황계감』과 마찬가지로 왕실 내부의 문제에 관계되는 문건인 만큼 그 제작에도 역시 수양대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용상으로도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은 각각 당 현종과 석가모니라는 단일 인물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친연성이 있다.

『용비어천가』는 상기의 편찬물들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편찬물의 제작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종은 이미 편찬이 완료된 『명황계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168장에 달하는 장편의 노랫말을 지어 내었는데 각 장이 대우로 짜여 있다거나 감계를 영탄으로 드러내었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용비어천가』 한문가사의 형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작업은 『석보상절』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받아 보고서 그 내용에 의거하여 곧 583장 규모의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으며 이때에는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들 노랫말은 세종대까지는 별도로 존재하였다가 세조대에 들어 노랫말이 원 전적과 합편된다. 이때의 합편은 『용비어천가』의 체제를 재현하는 양상으로 귀결되어, 『용비어천가』·『명황계감』·『월인석보』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동일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세조는 『삼강행실도』나 『용비어천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 『명황계감』을 개편하고 『월인석보』를 제작하는 데에는 진력하는데, 이는 자신이 처음부터 두 문건의 편찬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들 두 문건을 바탕으로 세종이 직접 노랫말을 지어 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작업과 부왕의 작업을 한데 합침으로써 세종의 유지가 자신에게로 이어진다는 뜻을 공고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간취된다. 아울러 세조는 합편한 전적을 온전히 국문화하려는 가외의 시도도 하였다. 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사례에서처럼 국문으로써도 만족할 만한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면서, 국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의도를 현창하려는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주제어】 삼강행실도, 명황계감,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종, 세조

I. 서론

본고에서는 세종대에 제작되었거나 제작되기 시작했던 편찬물들 가운데 『三綱行實圖』, 『明皇誠鑑』, 『龍飛御天歌』, 『月印釋譜』가 지닌 체제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 상호간의 상관성 내지 영향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이 시기 편찬 사업의 현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세종 연간을 특징짓는 여러 사안들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도서 편찬 및 간행이다. 세종은 조선의 문화적·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종 진력하였거니와 그 과정에서 각종 편찬물들이 산출되었다. 세종대에는 80종에 이르는 다수의 도서가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역사·지리, 정치·법률·군사, 과학·기술, 어문학, 유교·불교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분야가 망라되어 있기도 하다.¹⁾ 이러한 편찬 사업에 대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여러 논저를 통해 조명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글 관련 초기 문헌들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이 같은 연구사적 축적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새삼 논의를 덧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종래의 연구들이 한글 관련 편찬물들 사이의 상관성을 충분히 해명하지는 못하였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종대의 편찬물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별도의 체제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나, 이전 편찬물의 체제를 원용하여 후속 편찬물을 기획했던 사례 역시 흔히 나타난다.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한글 관련 문헌인 『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의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의 체제에 끼친 영향이 뚜렷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²⁾ 『용비어천가』 이전 편찬물들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별반 고찰이

1) 김윤식, 「세종조의 도서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69-89; 김건곤, 「세종대의 문풍진흥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세종시대의 문화』, 태학사, 2001, pp.199-208.

2) 신영명·김명준, 「한국 중세 정치 사상과 문학: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중심으로」, 김명준, 『한국고전시가의 모색』, 보고사, 2008, pp.156-179;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사, 2012, pp.266-290; 정소연, 「「용비어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시야를 보다 확장하여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³⁾

특히 편찬물들 중 일부는 세종대에 일단 편찬되었다가 이후의 시점, 특히 세조대에 들어 개편 또는 증보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해당 내역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세종대에 이루어진 편찬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세종대의 유업이 후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귀결되는지 그 주요한 특질까지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대의 현안을 보다 역동적인 면모로 되살리는 한편, 편찬물들에 반영된 의도를 당대적 관점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하 2장에서는 『삼강행실도』·『명황계감』·『용비어천가』·『월인석보』의 편찬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논의의 발판을 삼고, 이어지는 3장에서 이들 편찬물들이 상호 어떠한 관련성 속에서 제작되었는지 세 개의 절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Ⅱ. 네 문건의 주요 특징

『삼강행실도』·『명황계감』·『용비어천가』·『월인석보』 각각의 문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으므로 본고의 논

와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매체에 나타난 양충언어문학성, 『조선 전·중기 시가의 양충언어문학사』, 새문사, 2014, pp.31-59 등.

3)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네 문헌 가운데 『삼강행실도』만은 ‘한글 관련 편찬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편찬 당초부터 『삼강행실도』를 언해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삼강행실도』가 반포되던 시점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이므로 이 책이 언해를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언해하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 및 운용 방침과 『삼강행실도』는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4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pp.91-92 참조.]

의에 긴요한 사항들만을 간추려 정리하기로 한다.

네 문건 가운데 시기상 가장 앞서는 것은 『삼강행실도』이다. 세종10년(1428)에 晉州人 金禾가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엄벌을 내리기에 앞서 孝行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간행하여 백성들에게 항상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세종이 내비치면서 간행이 시작되었다. 백성들에게 三綱의 도리를 일깨우기 위한 실질적인 교화서를 기획했던 것이다. 제작 과정에서는 명나라 태종대에 간행되어 조선에 유입된 여러 칙찬 교화서들과 고려말 權溥가 편찬한 『孝行錄』 등이 주요한 자료적 원천으로 활용되었다.⁴⁾

『삼강행실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제명의 ‘圖’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도상을 전면에 내세워 전달력을 높이려 하였다는 점이다. 한문을 해독할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 그림을 통해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직관적으로라도 인식케 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⁵⁾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림 자체가 지닌 형상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할 여지도 분명 존재하는데, 그 단적인 사례가 언해 작업에서 드러난다. 『삼강행실도』를 언해하려는 뜻은 이미 세종이 직접 표명한 바 있지만,⁶⁾ 실제로 언해가 이루어진 것은 성종대에 들어서이다. 언해본이 제작

4) 김원용,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김익현 역, 『삼강행실도: 충신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pp.3-6; 김항수,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집, 진단학회, 1998, pp.233-237; 이상민, 「조선초 勅撰勸戒書의 수용과 『삼강행실도』 편찬」, 『한국사상사학』 56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pp.45-59.

5) 이처럼 교화서에 그림을 붙이는 전례는 남송대에 趙孟堅이 만든 『二十四孝圖』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이미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보급되었다. 또한 태종 13년에는 권부가 편찬한 『효행록』에 그림을 붙이고 이계현의 찬과 권근의 주를 삽입하여 간행하게 한 바도 있다. [김항수, 앞의 논문, p.233.] 한편, 『삼강행실도』 그림의 목적은 삽화의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느냐에 있었으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원적 구성 방식의 서술 구조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정병도,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85집, 진단학회, 1998, pp.192-194.]

6) 『세종실록』 권103, 26년 2월 20일(경자). “(…) 前此, 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

됨으로써 백성들이 보다 쉽게 책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중간본들에서는 물론, 『二倫行實圖』나 『五倫行實圖』 등 『삼강행실도』의 체재를 준용하여 제작된 후속 전적들에서도 그림은 반드시 포함되었으며, 어느 것이든 ‘도’라 지칭하였다. 그만큼 『삼강행실도』에서는 그림의 위상이 지대했던 것이다.

각 그림의 뒤에는 한문으로 해설을 달아 내용을 풀이하였고 해설의 말미에는 본문의 내용을 응축 또는 정리한 시를 붙여서 각 사적을 인상 깊게 마무리 지었다. 덕행을 부각하는 내용을 지닌 시를 덧붙임으로써 『삼강행실도』를 접하는 이로 하여금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려 하였던 의도가 간취된다.

다음으로, 세종23년(1441)에 나온 『명황계감』은 네 문건 가운데 현재 원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유일한 편찬물인데, 앞서 살핀 『삼강행실도』와 그 다음에 제작된 『용비어천가』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건들 간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명황계감』은 그 제명에서 드러나듯이 명황, 즉 唐玄宗의 사적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현종이 楊貴妃의 미색에 빠져 정사를 방기하였다가 국가적 위난을 초래했던 일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조명하는 데 주를 두었다. 세종은 이와 같은 당현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嗣王들이 처신에 신중하고 군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경계하기 위해 『명황계감』의 편찬을 명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간본은 남아 있지 않고 간본의 일부 내용이 언해된 필사본 두 종이 전할 따름이어서 원전의 정확한 체재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세종실록』과 『세조실록』에 수록된 수건의 기사, 세종대에 朴彭年이 지은 서문, 세조대에 崔恒이 지은 서문, 그리고 현전 필사본에 실린 金漢藎의 「諺解騰出小識」, 같은 필사본에 실린 작자 미상의 後序 등의 기록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재구해 볼 수 있다.

다만, 『명황계감』은 세종대에 일차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세종이 거기에 친제 가사를 지어 붙임으로써 텍스트가 확대되었고, 이를 세조가 자신

의 재위기에 합본 및 증수하여 언해까지 완료함으로써 책의 체제가 수차례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대에 편찬된 책을 ‘명황계감’이라 지칭하는 사례, 여기에 세종의 친제 가사를 합하여 ‘명황계감’이라 부르는 사례, 그리고 세조대에 증수된 책을 ‘명황계감’이라 칭하는 사례들까지 섞여 있어서 ‘명황계감’이라는 말 자체의 용례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우선 세종대에 처음 제작된 체제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당 현종의 행적과 관련된 그림을 앞에 배치하고 해당되는 사적을 『資治通鑑』 등의 기사에서 발췌·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리라 보인다. 또한 박팽년의 서문에 따르면, 각 사적의 말미에는 당 현종의 행적을 평한 ‘先儒의 論’을 가려 뽑아 싣고 현종의 일화를 바탕으로 지은 ‘古今의 시’까지도 수록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 사적에 대한 공론화된 관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취지가 간취된다.

셋째로, 『용비어천가』는 검토 대상 문건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관련 연구도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초간초쇄본부터 3종의 復刻本에 이르기까지 여러 판본이 남아 전하고 있어서 세종 당대의 모습을 재구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가 제작된 과정과 경위 역시도 『세종실록』을 비롯하여 「龍飛御天歌序」·「進龍飛御天歌箋」·「龍飛御天歌跋」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용비어천가』는 왕조 창업의 내력과 관련된 각종 사적들을 집성 및 확정함으로써 건국의 위업을 홍보하는 한편, 선조들의 간난을 되새겨 경천근민함으로써 국가의 영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규계를 사왕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복합적인 의도를 띠고 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에 이미 그 제작 방향이 한 차례 수정되었다. 세종의 본래 의도는 왕조 창업의 내력과 사왕을 향한 교훈을 담은 노랫말을 지어 내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고, 처음 權躔·鄭麟趾·安止 등에 의해 진상되었던 것도 국문가사와 한문가사뿐이었다. ‘歌’라는 제명이 붙은 이유 역시 제작 당시에는 노랫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항 등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한다. 재래의 史編에 수

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이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노랫말 자체만으로는 그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관련 사적을 가려내어 노랫말에 해설을 달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다. 이 일이 완료됨으로써 『용비어천가』는 비로소 노랫말과 그에 딸린 해설이 합쳐진 형태로 인간되어 나오기에 이른다. 다른 3종의 편찬물과는 달리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초간된 이후 개편이나 증보 작업에 대한 논의 없이 그 체제가 유지되었으며 광해군·효종·영조대에 각 한 차례씩 복각본이 제작될 때에도 한글 표기와 한자 몇 군데가 바뀌었을 뿐 별다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⁷⁾

끝으로, 문건들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월인석보』는 한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다. 제작 작업 역시 세종대에 미쳐 완료되지 못하고 세조대에 들어서야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월인석보』를 세종대의 편찬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재료가 되는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이 세종대에 이룩된 만큼 앞의 세 문건과 견주어 체제상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인석보』는 세종28(1446)년 3월에 昭憲王后가 승하하자 세종이 비를 追薦할 목적으로 首陽大君에게 釋迦牟尼의 연보를 만들어 국문으로 번역하라고 명하면서 제작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수양대군이 『釋迦譜』·『釋迦氏譜』 등 재래의 여러 釋譜를 편삭하고 『法華經』 등 석가의 가르침이 담긴 대승경전의 내용을 침입하여 책을 만들어 올리자 세종은 이내 ‘석보상절’이라는 제명을 내리는 한편,⁸⁾ 『석보상절』의 내용을 국문으로 詩化한 노랫말을 자신이 직접 별도로 지어서 580여 장 규모의 『월인천강지곡』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월인천강지곡』이 『석보상절』을 바탕으로 지어지기는 하였으며, 세종은 적어도 제작 초기에는 두 문건이 각각의 의의를 지니는 편찬물이라 여겼던 것이 명백하며, 그러한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종30년(1448) 9월

7)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編, 『龍飛御天歌』 下,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38, pp.1-12; 조규태, 『용비어천가』, 개정판, 한국문화사, 2010, pp.7-17.

8) 『석보상절』의 底經에 대해서는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보고사, 2010, pp.49-74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전에 둘을 따로 인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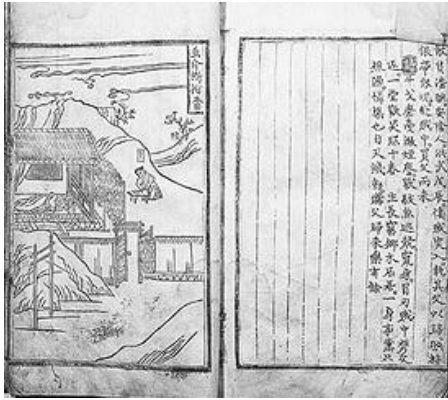
양자가 합철된 것은 세조에 의해서이다. 「月印釋譜序」에서 세조는 萬幾가 비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글의 합편을 미룰 수 없다고 하여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부왕의 『월인천강지곡』을 내용에 따라 분단하여 앞에 배치한 후 거기에 해당하는 『석보상절』의 대목을 노랫말에 대한 해설격으로 잇달아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종이 승하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작업을 수양대군에게 지시하였다는 언급이 『梅月堂續集』에 전하고 『월인석보』에서도 『월인석보』를 세종의 유작이라 칭한 것을 보면, 『월인석보』의 체제를 정하는 데 세종의 뜻이 깊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로 세조5년(1459)에 완성된 『월인석보』는 25권 25책 분량의 방대한 편질로 인간되었다.

Ⅲ. 편찬물 체제 간의 상관성

2장에서 정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이들 편찬물들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위의 편찬물들이 제작된 시기와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논의들을 고려하면 이전에 이룩된 편찬물의 체제가 다음 편찬물을 제작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 흔적을 여러 부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때로는 이미 완료된 편찬물을 선행 편찬물의 체제에 의거하여 보다 완전한 형태로 개편하려고 시도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시도가 세종 당대에 미처 실현되지 못해 세조대로 이월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별 문건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 개편 과정 및 세조대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한층 폭넓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은 그 친연성이 외형적 측면에서 우선 명확



<그림 1> 『삼강행실도』

하게 드러난다. 두 편찬물은 모두 그림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세종대에 나온 여타의 문건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삼강행실도』의 제명에는 아예 ‘도’를 넣어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명황계감』에서는 ‘살펴서 경계한다.’라는 제작의 목적을 제명에 직접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였지만, 그림이 문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주요한 요소였음이 분명하다. 『세종실록』과 박팽년의 「명황계감서」에서는 공히 “먼저 그 형상을 그리고, 뒤에 그 사실을 적었다.[先圖其形, 後紀其實.]”라고 하여 그림을 앞세운 편찬 체제를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⁹⁾

엄밀한 의미에서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은 보기 위한 편찬물이기 보다는 삼강의 실천 사례 또는 당 현종의 행실과 관련된 내역을 직접 읽거나 누군가 읽어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감화를 얻는 데 소용되는 문건이다. 그림은 책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해 주는 보조 자료로서의 성격을 떨 뿐 그림만을 가지고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림까지 넣어서 刊本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력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림을 고집했던 사정이 『삼강행실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삼강행실도』의 제작 목적 자체가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교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최대한 직관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9) 『세종실록』 권93, 23년 9월 29일(임술); 박팽년, 「명황계감서」.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동문선』 7, 민족문화추진회, 1969, pp.403-754.]

그림을 넣는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왕들의 행실을 경계하기 위해 편찬한 『명황계감』에 그림이 들어간 이유는 분명치 않다. 실상 그림만이 문제가 아니라 『명황계감』이라는 책이 제작된 계기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삼강행실도』는 진주에 사는 백성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백성들을 교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군왕의 책무를 강조하는 『명황계감』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충격적인 동기가 있을 법하지만 이렇다 할 사건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명황계감』의 제작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는 세종의 다음과 같은 언술 정도에 불과하다.

임금이 호조참판 李宣, 집현전 부수찬 朴彭年, 著作郎 李塏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옛사람이 당 명황과 양귀비의 일을 그린 자가 꽤 많았다. 그러나 희롱하고 구경하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 명황은 ‘英主’라고 이름하였었는데, 만년에 여색에 빠져 패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처음과 끝의 다름이 이 같은 자가 있지 않았다. 月宮에 놀았다든가, 龍女를 보았다든가, 楊通幽 등의 일은 지극히 허황하고 망령되어 기록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朱子가 『綱目』에 다 역시 “황제가 공중에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써서, 명황이 기괴한 것을 좋아하는 사실을 보인 것이니, 무릇 이런 말은 역시 국가를 가진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편찬하여라.” 하였다. 이선 등이 명령을 받들어 撰集하되, 먼저 그 형상을 그리고 뒤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혹은 先儒의 논을 기록하기도 하고, 혹은 고금의 시를 써 넣기도 하였다. 책이 다 이룩되매, 이름을 ‘명황계감’이라고 내렸다.¹⁰⁾

10) 『세종실록』 권93, 23년 9월 29일(임술). “上命戶曹參判李宣, 集賢殿副修撰朴彭年, 著作郎李塏等曰: “古人圖唐明皇, 楊妃之事者頗多, 然不過以爲戲玩之資耳. (...) 明皇號稱‘英主’, 而晚年沈於女色, 以至於敗, 終始之異, 未有如此者也. 至若遊月宮見龍女, 楊通幽等事, 極爲誕妄, 似不足書也. 然朱子於『綱目』, 亦書: ‘帝聞空中神語’, 以見明皇好怪之實. 凡此等語, 亦有國家者之所宜深戒也, 爾等其纂之.” 宣等承命撰集, 先圖其形, 後紀其實, 或附以先儒之論, 或係以古今之詩. 書既成, 賜名曰: ‘明皇誠鑑.’”

위 기록에서 세종이 당 현종에 관련된 사서의 기사나 재래의 시 등을 언급하는 대신에 현종과 양귀비를 그린 옛 그림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뜨인다. 그러나 “국가를 가진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有國家者之所宜深戒也.]”라는 말 외에 『명황계감』을 제작한 필연적 동기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그림과 경계라는 두 가지 사항에 유념할 때, 『명황계감』이 제작된 계기는 특정 사건보다는 오히려 선행 전적인 『삼강행실도』로부터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삼강행실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던 세종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되 수신 대상을 달리 하는 후속 문건, 즉 『명황계감』의 제작을 의도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삼강행실도』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이 일반 백성이라면 세종의 입장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왕실의 후손들이다. 『삼강행실도』가 백성들에게 도리를 일깨우기 위한 목적을 띠는 만큼, 그와 짝을 이루어 王者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별도의 문건을 기획해 보려 하였던 취지가 간취된다. 즉, ‘백성들을 위한 교화서’와 ‘왕실 후손들을 위한 감계서’라는 쌍을 갖추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을 보다 적실하게 보여 주는 사항이 바로 두 문건이 지니고 있는 체제상의 상동성이다.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은 자매편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로 거의 같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 그림을 제시하고 잇따라서 그림에 대한 해설을 한문으로 실는 큰 틀이 우선 두드러진다. 『명황계감』의 독자는 처음부터 ‘국가를 가진 자[有國家者]’로 상정되었으므로 한문 해독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림을 끌어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편찬 초기부터 그림을 고집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을 위한 『삼강행실도』와 대를 이루면서 왕실 내부에서 소용되는 전적을 별도로 구성해 보고자 하는 의도의 발로로 해석된다.

그러한 의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삼강행실도』의 해설 부분 말미에는 해당 내용을 압축하고 인물의 행실을 칭송하는 讚詩를 붙여서 각 삽화를 마무리 지었거니와, 위 실록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은 『명황계감』에도 역시 적용되었던 것이다. 즉, 『명황계감』의 해설 부분 말미에는 당 현종의 행적을 바탕으로 지은 재래의 시를 붙였으며, 그 가운데 李奎報의 「開元天寶詠史詩」는 현전 필사본에서도 그 자취가 나타난다.¹¹⁾ 물론, 『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인물들은 칭송의 대상이 되는 반면, 당 현종의 행적은 반면교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비판적인 내용의 시들이 아무래도 주로 채택되기 마련이었으나, 어떤 내용으로든 해설의 말미에 시를 넣어 감화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각 부분을 종결한 점은 『삼강행실도』의 체제를 준용한 결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만, 왕실 후손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당 현종의 행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명황계감』의 경우에는 『삼강행실도』의 경우보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의 근거가 요구된다. 때문에 『명황계감』에서는 시 이외에 추가로 先儒의 論, 특히 史論을 해설에 부기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삼강행실도』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의 특성과 편찬 목적을 고려한 다소의 변개 내지 확대라 할 만하다.

한편, 또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언해이다. 본래 한문으로 제작 완료된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은 공히 후대에 언해되었는데, 이 역시 양자의 상관성을 짐작케 하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삼강행실도』의 경우에는 책을 언해하려는 의도를 세종이 직접 표명한 바 있다.

(…)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¹²⁾

11) 김일근, 「『명황계감』과 그 언해본에 대한 新攷: 이규보의 영사시에 관련해서」, 『건대 학술지』 24집, 건국대학교, 1980, pp.47-57; 강경호, 「『명황계감』과 그 原據文獻添補: 開元天寶詠史詩 43首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집, 국제어문학회, 1981, pp.1-16; 김승우, 「『명황계감』의 편찬 및 개찬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사, 2017, pp.344-345.

12) 『세종실록』 권103, 26년 2월 20일(경자). “(…) 前此, 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

『삼강행실도』가 반포된 세종16년(1434)의 시점은 訓民正音が 창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설을 한문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언해를 통해서 백성들이 직접 그 내용을 접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으므로 세종이 언해를 추진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명을 받은 정창손이 『훈민정음』의 반포를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면서 『삼강행실도』 언해 작업이 세종 당대에는 유아무야되고 성종21년(1490)에 이르러서야 언해본이 나오게 되지만, 후대에나마 세종의 의도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해 작업이 『명황계감』에서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된 시기가 『삼강행실도』보다 앞서는 세조대라는 사실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세조는 부왕이 제작한 『명황계감』을 개찬하는 작업에 상당한 공력을 들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기존 『명황계감』의 내용을 증보하는 한편으로 그렇게 개편된 내용을 모두 번역하도록 하여 언해본 『명황계감』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백성에게 읽히려는 『삼강행실도』와는 달리 사왕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황계감』을 굳이 언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되지만, 수차례의 교정을 거칠 정도로 언해 작업은 매우 정교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¹³⁾ 물론, 실제 언해가 이루어진 것은 『명황계감』이 먼저이나, 언해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삼강행실도』가 우선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황계감』이 『삼강행실도』의 체재를 추수해 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13) 『삼강행실도』를 언해하려는 세종의 유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삼강행실도』 언해에 별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세조 자신이 『삼강행실도』의 편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삼강행실도』 자체의 효용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조실록』 권36, 11년 7월 25일(경오). “召梁誠之, 曰: “人之所以爲人, 不過忠孝而已. 忠孝之道, 於『論語』, 『小學』備矣, 然經傳汗漫, 莫若撮其要者而觀之. 如『孝行錄』, 稍便於觀覽, 『三綱行實圖』, 則既紀事迹, 又著詩讚, 未免拘例. 且傷於煩, 卿就考『三綱行實圖』及諸史, 撰關係五倫數十條以進. 予將觀覽裁定, 以爲萬世教人之法.” 誠之撰進, 命與盧思愼同議校定, 遂命名『五倫錄』.”

이처럼 당초부터 『삼강행실도』의 체제를 준용하여 제작된 『명황계감』은 개편 과정에서도 『삼강행실도』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서 양자 간의 영향 관계가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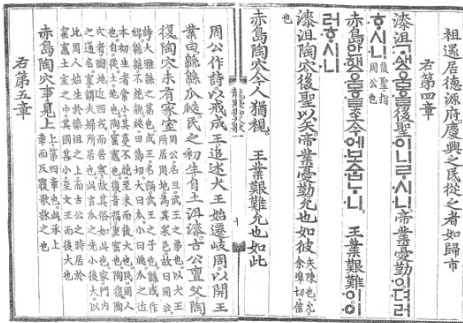
2.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

위에서 살핀 대로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의 상관성이 매우 뚜렷한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위치하는 쌍인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의 상관성은 적어도 외형적인 체제에서는 별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우선 『용비어천가』에는 『삼강행실도』와 『명황계감』의 가장 큰 특징인 그림이 없고 대신 노랫말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선행 편찬물들과는 관련 없이 독자적인 체제로 이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익히 알려진 대로 이 문건은 간행 이전에 이미 한 차례의 증보가 이루어졌다.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와의 상관성 역시 바로 이 증보 작업에서 되짚어 볼 수 있다.

삼가 생각해 보면, 왕실의 조상은司空이 처음 신라를 도운 이래로 면면히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이어 수백여 년이 내려오다가 穆祖에 이르러 비로소 朔方에서 기틀을 마련하였고, 翼祖·度祖·桓祖 세 성인이 서로 이어서 孝悌와 忠信으로 집안의 법을 삼으니, 삭방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노인들이 이야기를 서로 전하여 칭송의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 신과 집현전대제학 의정부우찬성 신 권제, 제학 공조참판 신 안지는 은택을 입어 글 짓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성대한 덕을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루하고 졸렬한 말을 가지고 덕업을 풀어내는 것은 불가하므로, 삼가 백성의 풍속에서 칭송하는 말을 채록하여 歌詩를 지었습니다.¹⁴⁾

14) 『용비어천가서』, 『용비어천가』, pp.1b-4a. “(…) 恭惟祖宗, 自司空始佐新羅 緜緜世濟其美, 歷數百餘年, 至于穆祖 肇基朔方, 翼祖, 度祖, 桓祖, 三聖相承, 以孝悌忠信爲家法, 朔方之人, 咸歸心焉. 至今父老相傳, 稱口不置. (….) 臣與集賢殿大提學議政府右贊成臣權提提學工曹參判臣安止, 沐浴恩澤, 職備文翰, 歌詠盛德, 乃其宜也, 不可以詞語鄙拙爲解. 謹採民俗稱頌之言, 撰歌詩. (….)”



<그림 2> 『용비어천가』 권1

정인지가 작성한 「용비어천가서」에 따르면 당초에는 國祖들의 위업을 칭송할 악장을 제작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노랫말을 짓고 이를 악곡에 올려 부르면서 그 뜻을 새기려 했을 뿐, 노랫말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설할 계획은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북방에 떠도는 四祖와 태조의 사적을 함경도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해 올리게 할 정도로 『용비어천가』를 짓는 데 열정을 보였던 세종조차도 사적을 노랫말로 표현하는 것만을 의도하였을 따름이다.¹⁵⁾

그러나 노랫말을 진상 받은 세종은 노랫말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하며 ‘용비어천가라 賜名하면서도 이내 崔恒 등에게 주해를 덧붙이려는 명을 추가로 내린다.¹⁶⁾ 그에 따라 노랫말의 바탕이 되는 사적을 각 장별로 부기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는 夾註까지 달아 그 내용을 매우 상세히 해설하는 방식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삼강행실도』나 『명황계감』에서 그림이 차지하던 위치에 노랫말이 대신 들어간 형상이 되었던 것이다. 분량 역시도 국문가사와 한문가사 각 125장에 불과하던 것이 해설을 첨입하면서 10권 5책 규모로 확대되어 『용비어천가』는 완

15) 『세종실록』 권78, 19년 7월 29일(정사). “咸吉道監司書進穆翼度·桓列聖遷居之處，及其誕生之地，與其子孫族譜，所居州里名號。”

16) 「용비어천가발」, 『용비어천가』, pp.1a-2b. “(…) 歲乙丑，議政府右贊成臣權暹·右參贊臣鄭麟趾·工曹參判臣安止等，製爲歌詩一百二十五章以進，皆據事撰詞，撫古擬今，反覆敷陳，而終之以規戒之義焉。我殿下覽而嘉之，賜名曰‘龍飛御天歌’。惟慮所述事蹟，雖載在史編，而人難遍閱。遂命臣，及守集賢殿校理朴彭年，守敦寧府判官臣姜希顏，集賢殿副校理臣申叔舟，守副校理臣李賢老，修撰臣成三問，臣李埏，吏曹佐郎臣辛永孫等，就加註解。於是粗敘其用事之本末，復爲音訓，以便觀覽，共一十卷。”

연히 왕조 창업의 내력을 집대성한 대단위 편찬물로서의 위상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내용을 응축하는 재료를 앞에 배치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한문 산문으로 덧붙이는 방식은 앞선 두 편찬물에서 이미 시도된 바이고 특히 『명황계감』은 편찬 시기가 『용비어천가』와 인접해 있기도 해서 『용비어천가』의 체제를 짜는 데 『명황계감』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선 두 편찬물은 교화와 감계를 추구하는 교훈적 문건인 만큼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하였지만, 『용비어천가』는 기본적으로 창업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으며 제작 당시만 해도 祭禮樂章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¹⁷⁾ 六龍의 위업을 인상 깊은 표현으로 응축하여 공식 석상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권제 등에 의해 노랫말이 제진됨으로써 그러한 일차적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세종은 이내 또 다른 방식으로 노랫말의 활용도를 확장해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항의 「용비어천가발」에 따르면 세종이 노랫말에 주해를 붙이고자 했던 이유는 “[노랫말을] 사람들이 두루 보기가 어렵다.[人難遍閱.]”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단지 부르고 듣는 텍스트만이 아닌 열람하면서 그 뜻을 새길 수도 있는 텍스트로 성격을 확대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노랫말은 노랫말대로 활용하여 管絃에 올려 부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랫말을 읽고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산문 해설을 통해 되새기는 방식까지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노랫말은 그림에 비해서는 한층 독자적인 면모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역시도 그림보다 분명하기는 하지만, 노랫말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함축성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서술할 수 없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더구나 『용비어천가』 자체가 古聖 및 육룡의 행적과 관련된 수많은 사적들을 바

17) 『세종실록』 권116, 29년 6월 4일(을축). “議政府據禮曹呈啓: “(…) 今降「龍飛御天謠」, 乃爲歌詠祖宗盛德神功而作, 所宜上下通用, 以極稱揚之意, 不可止爲宗廟之用. 「與民樂」·「致和平」·「醉豐亨」等樂, 於公私燕享, 并許通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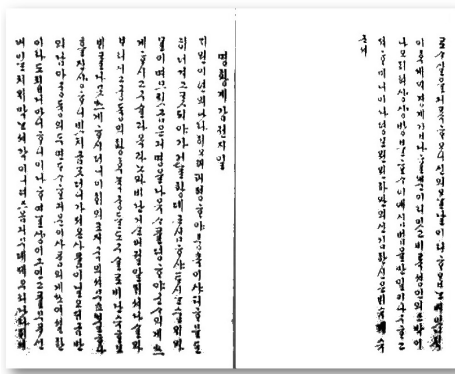
탕으로 하는 만큼, 어떤 사적에서 노랫말을 취해 왔는지 노랫말만을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이 착목할 수 있는 문건은 그림을 앞에 두고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이 적용된 『삼강행실도』나 『명황계감』과 같은 편찬물이다. 해설의 재료가 되는 대상이 그림과 노랫말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노랫말을 장별로 하나씩 분단하여 일일이 해설을 붙이는 방식은 그림을 한 단위로 하여 그림별로 각각 해설을 붙이는 『삼강행실도』 및 『명황계감』의 체재와 직접적인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이 제진되기 3년 6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명황계감』에 세종은 더욱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시간적 간극이 짧다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는 내용상으로도 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강행실도』는 덕행이 있는 인물들의 핵심적인 일화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데 비해서, 『명황계감』은 당 현종의 재위 초기부터 만년까지를 연속적으로 다루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왕조 창업이라는 사건을 사조부터 태조, 태종에 이르는 유서 깊은 역사로 조명하는 『용비어천가』의 구도와도 관련이 깊다. 또한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가 공히 제왕의 행적을 서술하는 한편 사왕들에게 규계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그 취지가 상통하는 만큼,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에 해설을 달아 서책의 형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직전의 전적인 『명황계감』이 중요한 참고가 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한편,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 사이의 영향 관계는 역방향으로도 나타난다. 그 단서는 세종이 직접 지었다는 노랫말을 통해 확



<그림 3> 『명황계감』[필사본]

인할 수 있다. 『명황계감』을 받아 본 세종은 그 내용에 의거하여 168장이 나 되는 장편의 노랫말을 손수 지어 내었는데, 그 노랫말의 특징이 『용비어천가』와 잇닿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세조가 세종의 친제 가사를 언해하라는 명을 내린 것을 보면, 친제 가사는 한문으로 지어진 것이 명백하지만, 김한신이 『명황계감』을 등출할 때에 노랫말이 이미 일실된 상태여서 현전 언해본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김한신 역시 「언해등출소지」에서 세종의 노랫말을 구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였다.¹⁸⁾ 그나마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해 노랫말의 형식을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忠順堂에 나아가서 弼善 洪應을 引見하고 말하기를,
 “『명황계감』은 내가 세종의 명을 받아 처음으로 찬집하였고, 뒤에 또 歌詞를 정하였다. 桂陽君 등에게 명하여서 여러 책을 고증하여 주를 달게 하였던니, 잘못된 것이 많다. 네가 그 출처와 주를 더 달 수 있는 곳을 고증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¹⁹⁾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8년 여름 5월에 신 아무개를 불러 이르시기를,

18) 『명황계감』[필사본] 권1, pp.6b-7a. “(…) 『명황계감(明皇戒鑑)』은 自省編의 일히 다하야 겨시매 가연(可憐)이 스모(思慕)하야 친(親)히 못 보물 혼(恨)홀분 아니라 성인(聖人)의 슈택(手澤) 미츠신 배 던(傳)티 못흐물 혼(恨)하야 모음의 경경(耿耿)하디 툃당유집(澤堂遺集)의 세종도(世宗朝)의 찬술(撰述)하신 칙(冊)은 스고(史庫)의 김초왓다 하야시매 혹 스고(史庫)의 보장(寶藏)하얏는가 너기디 어더불 길히 업서 하더니 혹(或) 날오디 금양위(錦陽尉) 박문정공(朴文貞公) 공가(公家)의 언역(諺譯)혼 본(本)이 잇다 하거늘 신(臣)이 그 후손(後孫) 금성위(錦城尉)로 인연(因緣)하야 비러 보오니 성조(聖祖)의 어데가작(御製歌章)과 고금의논(古今議論)이 하나토 든 배 업고 다만 명황(明皇)의 스실(史實)만 기록(記錄)하야 시니 크게 바라던 바의 어긋 일이라, (…)” 원문에는 한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의미 파악을 위해 인용문에는 한자를 추정하여 병기한다. 이하에서 『명황계감』 필사본을 인용할 때에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

19) 『세조실록』 권20, 6년 4월 3일(기유). “御忠順堂, 引見弼善洪應曰: “『明皇誠鑑』, 予受世宗命始纂集, 後又定歌詞. 命桂陽君等考諸書入註, 多有誤處. 爾其更考出處及可添註處以啓.”

“우리 세종께서 예전 서적을 널리 보시고 후일의 규모를 갖추고자 하여 일찍이 당 명황의 고사를 캐내서 손수 가사 168장을 지어 대문마다 그 사실을 서술하셨는데, 성패가 偶對에 보이고 鑑戒를 영탄으로 나타내어 말씨가 완순하면서도 드러나고 통창하면서 그윽하니 진실로 만세의 귀감이다. 나는 항상 선세의 아름다운 정책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끼친 자취를 회복하려 하는데 다만 서술한 사실이 너무도 간략하여 소소한 견문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너는 다시 수정을 가하고 아울러 주해를 지으라.”

하였다.²⁰⁾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세종의 친제 가사가 당 현종의 ‘성패’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계’라는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을 각각 ‘우대’와 ‘영탄’의 방식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우대란 노랫말 개개의 장에 적용된 작법으로 파악된다. 한 개의 장이 두 구로 나뉘며 두 구가 對偶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품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위 초에는 현명하고 명철한 판단으로 정치를 올바르게 관장하였던 당 현종이 만년에 양귀비의 미색에 빠져 패망의 위기를 자초했던 행적, 즉 명황의 ‘성패’를 서술하는 대목에서는 시구를 대우로 엮어서 작품을 지었던 것이다. 친제 가사는 또한 감계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하였는데, 이는 『명황계감』이 의도한 ‘계감’으로서의 성격과 상통하는 것이다. 왕실 후손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건이 제작된 만큼 감계를 드러내는 내용이 응당 포함되어야 하겠거니와, 이 부분에는 일률적으로 영탄의 어조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앞부분에는 대개 당 현종의 사적을 詩化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품 뒷부분에 들어 앞서 서술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사왕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영탄조로 표출하였으리라 추정된다.

20) 최항, 「명황계감서」. [『동문선』 권95.] “上卽位之八年夏五月, 召臣某若曰: “我世宗, 博觀前籍, 圖恢復規, 嘗摭唐明皇故事, 手製歌詞一百六十有八章, 逐節略敘其事, 成敗瞭於偶對, 鑒戒昭於詠嘆, 婉而顯暢而宵, 誠萬世之龜鑑也. 予常昭膺先猷, 兢兢往躅, 第慮敘事既簡, 謾聞難該, 爾其更加刪潤, 并著注解.””

그런데 『명황계감』을 바탕으로 세종이 친제한 가사와 『용비어천가』의 가사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만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선 양자가 모두 장편의 연장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각각 168장, 125장이라는 규모는 선초에 제작된 이전의 악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대한 분량이다. 아울러 “성패가 偶對에 보인다.[成敗瞭於偶對.]”라는 설명은 고성의 사적을 先詞에 두고 조종의 사적을 次詞에 두어 대를 구성했던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을 연상케 하며, “감계가 영탄에 밝게 드러난다.[鑒戒昭於詠嘆.]”라는 설명 또한 『용비어천가』 제 110~124장에 수록된 ‘毋忘章’의 특징과 직접 잇닿아 있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이 선행하는지가 관건이다. 세종의 친제 가사는 『명황계감』이 완성된 세종23년(1441) 9월 이후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분명치 않다.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은 세종27년(1445) 5월에 제진되었으므로, 세종의 친제 가사가 이 시점 이전에 지어졌다면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이 세종의 친제 가사의 형식을 바탕으로 찬술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반면, 그 이후라면 역으로 『용비어천가』 노랫말의 형식을 준용하여 세종이 친제 가사를 지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쪽인지 확증하기는 어려우나,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이 우선 제진된 후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긴 세종이 이후의 어느 시점에인가 『명황계감』의 내용을 『용비어천가』의 시형에 따라 노랫말로 지어 내었으리라는 추정이 좀 더 근리하다. 만일 세종의 친제 가사를 참고하여 정인지 등이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을 지었다면 「용비어천가서」나 「진용비어천가전」 등에서 해당 시형의 소종래를 응당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록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황계감』과 『용비어천가』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파악된다. 노랫말만이 존재하는 형태는 부족하다고 여겨 노랫말에 자세한 해설을 달아 양자를 합편하는 방식으로 『용비어천가』의 제작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그림에 해설을 붙이는 『명황계감』과 같은 편찬물의 체제가 원용되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대우와 규계가 적용된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에서 영향을 받아 세종이 직접 『명황계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용비어천가』의 시형에 준하는 168장의 한문가사를 지음으로써, 본래 그림과 해설만으로 구성된 『명황계감』의 체제에 노랫말까지 더하는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3. 『명황계감』·『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

네 문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월인석보』는 활용 가능한 전례가 이미 상당수 축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편찬물이며, 실제로도 앞선 전적들이 제작되거나 개편된 양상과 여러 모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먼저, 제작 의도나 방식과 관련하여 『월인석보』의 위상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 『삼강행실도』가 일반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었다면 그와 대를 이루는 『명황계감』은 왕실 후손들의 처신과 마음가짐을 경계하고자 하는 대내적 효과를 위주로 하였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석보』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 『용비어천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왕조 창업의 위업을 드러내고 악장으로도 연행할 것을 목표로 삼은 공식화된 문건인 데 비해, 『월인석보』는 왕실 내부의 차원에서 소헌왕후를 추천하려는 목적을 띠는 데다 내용조차도 불교적이어서 그 제작이 완전히 공식화되지는 못하였다.²¹⁾ 『삼강행실도』나 『용비어천가』의 편찬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수양대군이 『명황계감』과 『월인석보』의 제작은 물론 개편 작업까지 주도하였던 이유 역시 두 문건이 왕실 내부의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월인석보』는 제재나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는 『명황계감』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명황계감』은 당 태종이 ‘英主’로서의 명망을 저버리고 양귀비에게 현혹되어 결국 패망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일련의 사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월인석보』는 그와 전연

21) 두 문건의 이러한 대비점에 대해서는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4판, 지식산업사, pp.273-289; 정소연, 앞의 논문, pp.31-59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석가모니가 전생의 인연으로 궁중에 태어나 출가하여 성불을 하고 교법을 펼치다가 입적하였던 일생을 역시 일관된 흐름으로 서술하고 있다. 삼강의 덕목을 실천했던 인물들의 단편적인 일화들을 엮어 낸 『삼강행실도』보다 한층 일관된 구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육조로 확대되는 『용비어천가』에 비해서도 한 인물에 천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²²⁾

(…) 이 사이 追薦하는 일로 해서, 이제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 이름 붙여 말하되 『釋譜詳節』이라 하고, 별써 차례를 헤아리어 만든 바에 의지하여 世尊의 도를 이루어 내신 양자를 [그림으로] 그려 이루고, 또 正音으로써 한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노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三寶에 나아가 의지하게 되도록 바라노라.²³⁾

다만, 『월인석보』에서는 『명황계감』의 핵심이 되는 그림의 비중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이미 『석보상절』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삼강행실도』에 처음 그림이 들어간 것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삼강의 덕목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그림의 위상이 심지어 사왕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명황계감』에서조차도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사람마다, 즉 누구나를 독자층으로 설정했던 『석보상절』에서도 역시 그림

22) 이에 따라 『명황계감』이나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서사성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조홍욱, 「『월인천강지곡』의 내용 특징 연구: 「용비어천가」와 비교되는 서사시적 특징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3집,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 pp.55-72; 조규익, 「『월인천강지곡』의 서사적 성격, 『조선조 악장의 문예미학』, 민속원 2005, pp.233-284; 정하영, 「『명황계감언해』의 서사문학적 성격,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pp.243-276.]

23) 『釋譜詳節序』, 『月印釋譜』, pp.4a-6b. “(…) 近間(근간)에 追薦(뉘는) 訶스보물 因(인) 訶사바 이저기 여러 經(경)에 글히여 내야 各別(각별)히 訶 그를 밍그라 일홈 지허 그로디 『釋譜詳節(석보상절)』이라 訶고 訶마 次第(층명) 헤여 밍그론 바를 브터 世尊(생존) 人 道(도) 일우산 이리 양즈를 그려 일우습고 또 正音(정음)으로써 곧 因(인) 訶야 더 翻譯(번역) 訶야 사기노니 사람마다 수비 아라 三寶(삼불)에 나사가 븐긋고 브라노라.”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위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그림이 제작된 것은 이미 『석보상절』이 완성된 다음이었다. 그림을 제시한 후 그 그림에 대한 해설을 붙이는 방식으로 『석보상절』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석보상절』을 완성한 다음에 석가모니의 일대기 가운데 주요한 부분만을 그림으로 제작하여 일종의 참고 자료로 첨부하는 정도였던 것이다.²⁴⁾

그림의 활용보다 증시되었던 작업은 언해였다.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의 편찬을 명할 때부터 언해를 주문하였으며 언해까지 완료된 결과물이 세종 당대에 이미 24권 24책 분량으로 인간되어 나왔다. 다른 세 전적과 달리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제작되기 시작한 만큼 처음부터 국문본의 체재로 기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천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불법을 널리 퍼뜨려야 했으므로 누구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표기 문자는 응당 국문이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月印釋譜序」에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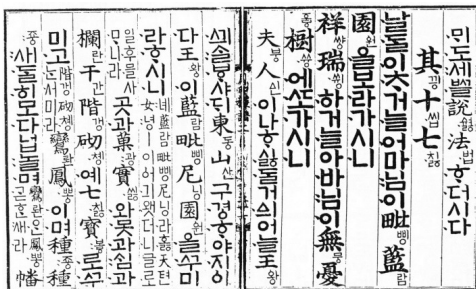
(…) 옛날 병인년에 [있어] 소헌왕후가 榮養을 빨리 버리시매[돌아가시매] 서러워 슬퍼함에 있어[서러워 슬퍼하는 가운데에] 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니, 세종이 나더러 말씀하시기를,

“追薦이 경을 옮겨 씌만 같은 것이 없으니, 네가 釋譜를 만들어 읊김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시매, 내가 인자한 분부를 받들어, 더욱 생각함을 넓게 하여[생각을 더욱 넓게 하여], 僧祐와 道宣 두 律師가 각각 系譜를 만든 것이 있거늘, 언어 보되 그 자세함과 줄임이 같지 아니하매, 두 책을 합하여 『釋譜詳節』을 만들어 이루고,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마다 쉬이 알게 하여 올리니, [세종께서] 봄을 내려 주시고[보아 주시고], 곧 기리는 노래를 지으시어, 이름을 ‘月印千江’이라 하시니, 이제 와서 높이 받들기를 어찌 녹이겠는가[소홀히 하겠는가]? (…)²⁵⁾

24) 현전 『월인석보』 초두에 한데 수록해 놓은 八相圖가 이때 제작한 그림으로 추정된다. [박도화, 「초간본 『월인석보』 팔상관화의 연구」, 『서지학연구』 24집, 한국서지학회, 2002, p.251.]

25) 『월인석보서』, 『월인석보』, pp.10a-13b. “(…) 네 丙寅年(병인년)에 이서 昭憲王后



<그림 4> 『월인천강지곡』 제2

위 서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석보상절』에 대한 세종의 반응이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받아 본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곧’ 노랫말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전에 『명황계감』에 대해서도 동

일하게 수행되었던 바이다. 세종은 『명황계감』의 내용을 168장 규모의 노랫말로 지어낸 바 있거니와, 그 형식이나 구도는 『용비어천가』 한문가사의 것을 준용하였다고 앞서 분석하였다. 이보다 훨씬 긴 583장 규모의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시형을 답습한 작품임이 명백하므로, 이 지점에서 세종의 친제 가사들이 지닌 상관성과 대비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둘 모두 『용비어천가』의 시형을 활용하여 찬술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바탕이 되는 전적이 어떤 표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명황계감』의 경우에는 한문가사를, 『석보상절』의 경우에는 국문가사를 지어 내었던 것이다.²⁶⁾

(중헌왕황) | 榮養(영양)을 쉰리 브러시늘 쉰버 슬쓰보매 이셔 흐옴 바를 아디 못흐다니 世宗(세종)이 날드려 니르샤디, “追薦(똥전)이 轉經(똥경) 곧흐니 업스니 네 釋譜(석보)를 밍마라 翻譯(번역)호미 맛당흐니라.” 흐야시늘, 내 慈命(중명)을 받즈바 더욱 스랑호몰 너비 흐야 僧祐(승우)·道宣(똥선) 두 律師(류승) | 各各(각각) 譜(보) 밍마로니 잇거늘 시러 보디 詳略(쌍략)이 흐 가지 아니어늘 두 글워를 어울워 『釋譜詳節(석보쌍절)』을 밍마라 일우고 正音(정음)으로 翻譯(번역)흐야 사툼마다 수비 알에 흐야 進上(진상)흐스보니 보물 주스오시고 곧 讚頌(잔송)을 지스샤 일후를 ‘月印千江(월인천강)’이라 흐시니 이제 와 이셔 尊奉(존봉)흐스보물 엇대 누기리오. (...)”

26) 『명황계감』의 노랫말 168장은 물론이고, 『월인천강지곡』 583장 역시도 바탕이 되는 내용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세종이 직접 지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명황계감』의 노랫말과 『월인천강지곡』의 경우에는 모두 연속적인 흐름으로 작품을 지어 내었다는 점에서, 古聖과 조종의 사적을 대개 正事對의 대우로 엮어 내었던 『용비어천가』와는 차이를 보인

이렇게 제작된 세종의 노랫말은 세종 당대까지는 별도의 완결된 텍스트로 존속하였다. 『명황계감』에 대해 세조는 자신이 세종의 명을 받아 책을 찬집하였고 뒤에 또 가사를 정하였다고 하여 노랫말은 노랫말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명하였다.²⁷⁾ 『월인천강지곡』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해서 『석보상절』 24책과는 별도로 『월인천강지곡』만이 상·중·하 3책으로 따로 인간되었다. 즉, 세종은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을 완결된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바탕으로 지은 자신의 노랫말들 또한 독립된 후속 텍스트로 여겼던 것이다.

이들 노랫말을 원 전적에 합편하여 최종적인 형태로 개찬한 인물은 세조이다. 세조대에는 『삼강행실도』나 『용비어천가』에 대해서는 개찬과 관련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명황계감』을 개수하거나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월인석보』로 합편하는 작업은 매우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은 부왕의 명을 받은 세조가 직접 편찬에 관여하였던 데다가 공교롭게도 두 문건에 대해서만 세종이 친제 가사를 지었기 때문에, 세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위기에 두 편찬물을 보다 완정하게 가다듬으려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신이 주관한 편찬물과 그에 대한 부왕의 친제 가사를 통합함으로써 세종과 자신의 작업이 하나로 통한다는 뜻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용비어천가』의 체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조가 합편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앞세웠던 것은 세종의 친제 가사였다. 제작 순서로 본다면 세종의 가사는 모두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이 편찬된 후에 지어진 것이지만, 부왕의 소작을 앞세워 수록 순서를 바꾸었다. 마치 노랫말이 먼저 지어지고 후에

다. 시형만을 『용비어천가』에서 취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p.111; 김승우 앞의 논문, p.349.]

27) 『세조실록』 권20, 6년 4월 3일(기유). “御忠順堂, 引見弼善洪應曰: “『明皇誠鑑』, 予受世宗命始纂集, 後又定歌詞. 命桂陽君等考諸書入註, 多有誤處. 爾其更考出處及可添註處以啓.””

산문으로 해설을 붙인 듯한 구도를 취하면서 『용비어천가』와 흡사한 체제를 재현하였던 것이다.

개찬이 먼저 이루어진 쪽은 세조5년(1459)에 나온 『월인석보』이고, 작업도 『명황계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듯하다. 세종은 당초 『월인천강지곡』을 지으면서 『석보상절』 가운데 인상 깊은 내용에는 많게는 수십 개의 장들을 할애하여 상세히 시화한 반면, 敎義的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대개 한두 개의 장에 짧게 대의만을 드러내면서 탄력적으로 내용의 비중을 조절하였다. 세조는 이 점을 면밀히 반영하여 『월인천강지곡』의 장들을 수 개에서 수십 개씩 삽화별로 분단하여 실고 거기에 대응되는 『석보상절』 부분을 바로 뒤에 해설로 잇대는 방식으로 두 전적을 합편하였다. 합편의 제명을 정할 때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석보상절’을 뒤에 넣어 ‘월인석보’라 한 이유도 여기에 있거니와, 이로써 노랫말과 산문 해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용비어천가』의 체제를 『월인석보』에서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²⁸⁾ 『석보상절』 단계에서도 책의 앞부분에 한데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八相圖는 『월인석보』에 와서도 초두에 배치되었다.

이상과 같은 방식은 세조8년(1462)부터 본격화된 『명황계감』의 개편 작업에도 적용되었으나, 그 과정은 『월인석보』보다는 좀 더 복잡하다. 본래부터 『명황계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림과 이제 새로 합편하게 될 노랫말의 위상을 어떻게 조절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이 노래야말로 임금 된 이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다스림을 나타내는 요결이요, 成業을 지키고 가득 찬 것을 유지하는 큰 교훈이다. (...) 더구나 성상께서 자손에게 남겨 주려는 거룩하신 마음과 선세의 유물을 계승하신 지극한 정은 신의

28) 물론 『월인석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개수하는 작업이 동반되었고, 그로 인해 내용이나 순서가 일부 변개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기중, 앞의 책, pp.26-41에서 면밀히 고증되었다.

筆舌로 다 형용할 수 없으니, 조선 억만 년에 다함없는 아름다움이 반드시 이 노래로부터 더욱 길어지게 될 것이다.²⁹⁾

그 추이는 최항이 『명황계감』의 개찬본에 붙인 위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항은 『명황계감』의 성격을 뚜렷이 ‘노래[歌]’라 규정하고 있다. 『명황계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그림의 위상을 세종의 친제 가사가 대신하게 된 사정이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용비어천가』가 ‘가로 지칭된 것과 견줄 수 있다. 것처럼 노래가 중시되면서 종래의 그림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그림이 『명황계감』의 체제를 개편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마저 발생한다.

종래의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랫말을 넣으려면 각 그림의 내용에 해당하는 노랫말을 분단하여 그림에 대응시키는 방식을 취해야 하지만, 그림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노랫말의 분량이 일정치 않은 데다, 특정 그림에는 노랫말이 배당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삽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노랫말 가운데 기준이 되는 요소를 어느 하나만 택해야 하겠는데, 이때 세조의 선택은 응당 세종의 친제 가사였다. 실제로 최항의 「명황계감서」나 『세조실록』의 『명황계감』 관련 기사 어디에서도 그림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개찬본에서는 그림을 모두 누락했거나 『석보상절』 및 『월인석보』에서와 같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그림을 몰아서 수록하여 그림을 일종의 부록 정도로만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조가 수행한 개편 작업을 통해서 중국에는 『용비어천가』개찬본 『명황계감』, 『월인석보』가 상호 유사한 체제로 귀결되었다. 그러한 결과를 추동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세종의 친제 가사이다.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을 받아 본 세종이 『용비어천가』의 한문가사와 국문가사의 시

29) 최항, 「명황계감서」, 『동문선』 권95. “然則是歌也, 豈非人主澄心出治之要訣, 守成持盈之大訓. (….) 若乃聖上, 敷遺貽燕之盛心, 繼述觀敬之至情, 非臣筆舌可得形容, 而朝鮮億萬載無疆之休, 未必不自此歌而益永也.”

형을 각각 준용하여 168장과 583장의 노랫말을 지어 내었고, 세조는 이들 친제 가사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합편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용비어천가』의 체제가 재현되었던 것이다.

다만, 『월인석보』의 편찬은 이로써 일단락되었지만, 『명황계감』의 경우에는 세조가 한 가지 과업을 더 수행하였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명황계감』의 개찬 과정에서 세조가 편수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문한 소임은 노랫말과 해설을 모두 언해하는 일이다. 국문으로 제작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그 내용이 그대로 합편되어 자연스럽게 국문으로 『월인석보』가 이룩되었지만, 『명황계감』은 당초부터 한문으로 편찬되었고 세종의 친제 가사 역시도 한문으로 지어졌으므로 양자를 합편한 개찬본 『명황계감』 또한 당연히 한문본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한문으로 우선 개편 작업을 완료한 후에 세조는 이를 모두 국문화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국문본을 교정할 정도로 이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다.³⁰⁾ 특히 세종의 친제 가사까지도 빠짐없이 언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문화에 대한 세조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단서가 된다.³¹⁾ 이 같은 작업이 세종의 뜻에 따른 조치였을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삼강행실도』를 언해하려는 의

30) 『세조실록』 권25, 7년 8월 27일(갑오). “召藝文提學李承召·行上護軍梁誠之·宋處寬·金禮蒙·禮曹參議徐居正·兪知中樞院事任元濬等, 以諺文譯『明皇誠鑑』.”; 권30, 9년 5월 15일(계묘). “命永膺大君琰·都承旨洪應·前尙州牧使金守溫等, 譯『明皇誠鑑』歌詞.”; 5월 16일(갑진). “又命中樞院使崔恒·藝文提學李承召·直藝文館李永垠·成均博士朴始亨等, 譯『明皇誠鑑』歌詞.”; 5월 19일(정미). “召左承旨李文炯, 校『明皇誠鑑』歌詞.”; 권31, 9년 9월 5일(신유). “命銀川君穰, 讎校恒等所撰『明皇誠鑑』.”; 최항, 『명황계감서』. [『동문선』 권95.]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동문선』 7, 민족문화추진회, 1969, pp.421-762.] “(…) 又會儒士, 譯以諺語, 河城尉等讎校, 永膺大君等再校, 臣與某某重校, 書成以進, 賜名曰: ‘明皇誠鑑.’”

31) 다만, 세종의 친제 가사를 언해한다고 해도 본래의 한문가사 역시 개찬본 『명황계감』에 함께 수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세종의 친제 가사가 『용비어천가』 한문가사의 시형에 준하여 지어진 만큼, 가사를 언해하는 데에는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시형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을 세종이 직접 표명하였던 것과는 달리 『명황계감』의 언해와 관련하여서는 『세종실록』, 『세조실록』 두 건의 「명황계감서」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언해는 오로지 세조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세조는 『명황계감』조차도 그 최종적인 형태는 완전한 국문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여기에는 세종이 추진해 왔던 지난 과업을 자신이 완결 짓겠다는 확고한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세종에 의해 창제된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석보상절』 같은 산문과 『월인천강지곡』 같은 노랫말을 모두 만족스럽게 지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직접 확인한 세조는, 부왕의 명을 받아 자신이 주관하여 편찬했던 『명황계감』 역시도 온전히 국문화하여야만 세종의 유지를 제대로 이을 수 있다는 책무를 자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조는 先世 세종의 유업을 빛내고 완성하려 한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출해 왔거니와, 그러한 취지가 세종대의 편찬물을 개찬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IV. 결론

이상에서 『삼강행실도』, 『명황계감』, 『용비어천가』, 『월인석보』가 지닌 체재상의 특징을 개관하고, 편찬물들 상호간의 상관성 내지 영향 관계를 세종대의 편찬 작업과 세조대의 개찬 작업을 통괄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네 전적 가운데 편찬 시기가 가장 앞서는 『삼강행실도』는 그림과 해설로 짜인 구성의 선례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백성들에게 삼강의 덕목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한 후 관련 사적을 한문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언해할 의도를 보였지만, 언해는 성종대에 들어 수행된다.

왕실 후손들에게 王者로서의 책무를 경계하기 위해 제작된 『명황계감』에서는 그 같은 『삼강행실도』의 체재가 준용되었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소용되는 『삼강행실도』와 왕실 후손들을 위한 『명황계감』의 쌍을 의도하였으며, 상호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명황계감』의 편찬에는 수양대군이 깊숙이 관여하였다.

왕조 창업의 위업을 공식화하기 위해 제작한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은 표면적으로는 『삼강행실도』 및 『명황계감』과 별반 관련 없이 지어졌으며, 서책의 형태로 인간될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세종은 노랫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노랫말 각 장에 해설을 달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서책으로 인간한다. 이러한 체제는 『삼강행실도』, 『명황계감』에서 그림이 차지하던 위치에 노랫말이 대신 들어간 형상이다.

『월인석보』는 세종대에는 편찬되지 못했지만, 그 재료가 되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이미 세종 당대에 마련되었다. 소헌왕후를 추천할 목적으로 편찬한 『석보상절』은 앞선 전적들과 달리 처음부터 한글로 이룩되었다. 또한, 『명황계감』과 마찬가지로 왕실 내부의 문제에 주로 관계되는 문건인 만큼 그 제작에도 수양대군이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용상의 특성으로도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은 친연성이 있다. 여러 인물의 행실을 집성하는 『삼강행실도』나 육룡의 행적을 조명하는 『용비어천가』와 달리 『명황계감』과 『석보상절』은 각각 당 현종과 석가모니라는 단일 인물의 행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상기의 편찬물들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편찬물의 제작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종은 이미 편찬 완료된 『명황계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168장에 달하는 장편의 노랫말을 손수 지어 내었는데 각 장이 대우로 짜여 있다거나 감계를 영탄으로 드러내었다는 설명으로 미루어 『용비어천가』 한문가사의 형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유사한 작업은 『석보상절』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세종은 『석보상절』을 받아 보고서 그 내용에 의거하여 곧 583장 규모의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으며 이때에는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들 노랫말은 세종 당대까지는 별도의 텍스트로 존재하였다가 세조대에 들어 원 전적과 합편되기에 이른다. 세조는 『삼강행실도』나 『용비어천

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 『명황계감』을 개편하고 『월인석보』를 제작하는 데에는 진력하는데, 이는 부왕의 명을 받아 자신이 처음부터 두 문건의 편찬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들 두 문건을 바탕으로 세종이 노랫말을 지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작업과 부왕의 작업을 한데 합침으로써 세종의 유지가 자신에게 이어진다는 뜻을 공고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간취된다.

두 문건은 본래 산문이 먼저 편찬되고 노랫말이 그 산문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합편을 하는 단계에서는 공히 세종의 노랫말을 앞부분에 배치한 후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산문 자료를 노랫말을 해설하는 용도로 뒤에 붙이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용비어천가』의 체재를 재현하는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세조는 합편한 전적을 온전히 국문화하려는 가위의 시도도 하였다. 산문과 노랫말 모두 본래 한문으로 지어진 『명황계감』조차도 모두 언해하였던 것이다. 이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사례에서처럼 국문으로써도 만족할 만한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면서, 국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의도를 현창하고 세종의 유지를 이으려는 세조의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각종 시책들은 다수가 후대에 전범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사 및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시책 가운데 특히 편찬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마땅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 역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으나, 편찬물들 상호간의 영향 관계에 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물론 관련 기록의 소략함과 일부 편찬물의 일실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난점을 감안하고서라도 편찬물들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탐문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세종대의 편찬물, 특히 초기 한글 관련 편찬물들은 세종대의 다대한 업적 가운데에서도 핵심을 차지하며, 세종의 문화관과 지향을 오늘날 되살려보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해명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니지만, 초기 한글 관련 편찬물들이 세종대와 세조대를 거쳐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논의, 활용, 개편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1. 자료

『삼강행실도』.

- 김익현 역, 『삼강행실도: 충신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김익현임창제 역, 『삼강행실도: 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이식 역, 『삼강행실도: 열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명황계감』 필사본.

- 디지털 한글박물관, 「문헌 자료와 해제: 명황계감언해언해」, 2018. 9. 19.
〈http://www.hangeulmuseum.org/sub/information/bookData/book_view.jsp?fileName=00647a00001aa000a&d_code=00647&g_class=04&pg=0〉.

『용비어천가』.

-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편, 『龍飛御天歌』 상하,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38.

『월인석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역주) 월인석보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등.

『동국이상국집』.

-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 민족문화추진회, 1988.

『동문선』.

-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동문선』 7, 민족문화추진회, 1969.

『세종실록』; 『세조실록』.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사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18. 9. 19.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2. 논저

강경호, 『『명황계감』과 그 原據文獻添補: 開元天寶詠史詩 43首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집, 국제어문학회, 1981.

김건곤, 「세종대의 문풍진흥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세종시대의 문화』, 태학사, 2001.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보고서, 2010.

-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서, 2012.
- _____, 「『명황계감』의 편찬 및 개찬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서, 2017.
- 김원용,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김익현 역, 『삼강행실도: 충신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 김윤식, 「세종조의 도서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일근, 「『명황계감』과 그 언해본에 대한 新攷: 이규보의 영사시에 관련해서」, 『건대학술지』 24집, 건국대학교, 1980.
- 김향수,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집, 진단학회, 1998, pp.233-237.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 박도화, 「초간본 『월인석보』 팔상판화의 연구」, 『서지학연구』 24집, 한국서지학회, 2002.
- 박종국,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4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 신영명·김명준, 「한국 중세 정치 사상과 문학: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을 중심으로」, 김명준, 『한국고전시가의 모색』, 보고서, 2008.
- 이상민, 「조선초 ‘勅撰勸戒書’의 수용과 『삼강행실도』 편찬」, 『한국사상사학』 56집, 한국사상사학회, 2017.
- 정병모,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85집, 진단학회, 1998.
- 정소연,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표기매체에 나타난 양충언어문학성」, 『조선 전중기 시가의 양충언어문학사』, 새문사, 2014.
- 정하영, 「『명황계감언해』의 서사문학적 성격」,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 조규익, 「『월인천강지곡』의 서사적 성격」, 『조선조 악장의 문예 미학』, 민속원, 2005.
- 조규태, 『용비어천가』 개정판, 한국문화사, 2010.
- 조홍욱, 「『월인천강지곡』의 내용 특징 연구: 「용비어천가」와 비교되는 서사시적 특징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3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4.

Abstract

The Correlation of the Publications Produced in the Reign of King Sejong

Kim, Seung-u*

This paper sought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four publications in the reign of King Sejong: *Samganghaengsildo*(三綱行實圖), *Myeongbuwanggyegam*(明皇誠鑑), *Yongbiocheonga*(龍飛御天歌) and *Wolinseokbo*(月印釋譜).

Samganghaengsildo provided a precedent for the composition of the paintings and commentary. Since *Samganghaengsildo* was designed to expose the virtues of Samgang(三綱) to the ordinary people, it took the way of expressing the content through the pictures and then interpreting the related historical episodes in Chinese characters. The form of *Samganghaengsildo* was applied to *Myeongbuwanggyegam*, which was made to watch out for the behavior of the royal descendants, and Prince Suyang was deeply involved in its composition. King Sejong wanted a pair of *Samganghaengsildo* for the people and *Myeongbuwanggyegam* for the royal descendants, and hoped that they would take the same form.

Yongbiocheonga, which was produced to justify the establishment of Joseon dynasty, did not have any relation with *Samganghaengsildo* or *Myeongbuwanggyegam* in the beginning when only its lyrics existed. However, King Sejong promptly instructed Choe Hang to give a commentary on each verse of the lyrics. Through this reorganization, in the place where the pictures occupied in *Samganghaengsildo* and *Myeongbuwanggyegam*, lyrics were substituted in *Yongbiocheonga*. *Seokbosangjeol*(釋譜詳節), compiled to commemorate Queen Soheon(昭憲王后), is a document related to the internal problem of the royal family as well as *Myeongbuwanggyegam*, so Prince Suyang also played an active role in its composition. In context, *Myeongbuwanggyegam* and *Seokbosangjeol* are also similar to each other in that they deal with a single character: Emperor Xuanzong of Tang and Shakyamuni.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eonju University / nakimsw@jj.ac.kr

Yongbieocheonga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above-mentioned compilations to be increased or new ones to be produced. Based on the contents of *Myeongbuwanggyegam*, King Sejong composed 168-verse lyrics, using the form of the lyrics in Chinese characters of *Yongbieocheonga*. Similarly, based on the contents of *Seokbosangjeol*, he also composed 583-verse lyrics named *Wolincheongangjigok*, using the form of the lyrics in Korean vernacular of *Yongbieocheonga*. These lyrics, which had existed separately until the reign of King Sejong, were integrated into the original texts in the reign of King Sejo. Such reorganizations resulted in a pattern of reproducing the style of *Yongbieocheonga*, leading to the result that the formats of *Yongbieocheonga*, *Myeongbuwanggyegam* and *Wolinseokbo* are basically the same.

King Sejo intended to reveal the meaning of his father King Sejong's continuity to himself by combining his work with that of his father's. Besides, King Sejo made extra efforts to translate all the combined works into Korean vernacular as well. He was confident that satisfactory documents could be made in Korean vernacular as in the case of *Seokbosangjeol* and *Wolincheongangjigok*. It is also understood that he actively used Korean vernacular to praise King Sejong's intention to newly create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Key words】 *Sanggambaengsildo*(三綱行實圖), *Myeongbuwanggyegam*(明皇誠鑑), *Yongbieocheonga*(龍飛御天歌), *Wolinseokbo*(月印釋譜), *Seokbosangjeol*(釋譜詳節), *Wolincheongangjigok*(月印千江之曲), King Sejong(世宗), King Sejo(世祖)

투고일 : 11월 12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